

사진 제공: 존 엠 헌츠먼 장로



엠 러셀 벨라드 장로(오른쪽)가 선교사 및 회원들과 모임을 가진 12일 간의 유럽 방문 여행 중 동행한 존 엠 헌츠먼 일세 장로 및 피터 헌츠먼 형제와 함께 대통령 궁에서 로버트 코차리안 아르메니아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있다.

벨라드 장로, 유럽 지역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격려

선 디 스탈, Church News 기자

십 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최근 유럽의 회원들과 선교사들에게 그들이 “복음의 가치관과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으며,]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친다면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봉사하는 일부 선교사들 가운데는 이 지역에서 침례 주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벨라드 장로는, “신앙과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선교사도 가르치고 침례 주는 것이 가능한 영역 밖에 있다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 선교사들은 교회를 강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 임지에 들어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2006년 8월 17일에 시작한 방문 기간 동안, 벨라드 장로는 유럽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념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럽 서, 유럽 동, 유럽 중부 지역의 선교부 회장 50명과 몇 차례의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는 영국 버밍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렸다. 그는 또한 이 지역의 많은 선교사들과 회원들에게 말씀했으며,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스위스에서 열린 그 밖의 회원 모임에서도 말씀했다.

“회원들은 전임 선교사들과 가까워져야 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회원들은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침례를 줄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선교사들이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일 시 텅기 장로와 지역 칠십인 역원인 존 엠 헨츠먼 일세 장로가 벨라드 장로와 동행했다. 칠십인 정원회의 테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 또한 유럽 동부 지역에서 벨라드 장로와 동행했다.

텅기 장로는 “선교사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잘 교육 받았습니니다. 그들은 나의 복음을 전파 하라에 지시된 대로 가르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들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방문 여정의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는 예레반에 있는 대통령 궁에서 로버트 코차리안 아르메니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이었다. 코차리안 대통령은 헨츠먼 장로의 오랜 친구이다. 이들은 1988년 지진으로 300만 명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 부상 또는 집을 잃게 된 재앙 이후로 헨츠먼 장로가 국가 재건을 위해 많은 인도주의적 기부를 했던 지난 18년 동안 우정을 쌓아 왔다.

국가 언론 매체는 대통령 궁에서 한 시간 동안 진행된 방문을 보도했으며, 헨츠먼 장로는 대통령에게 아르메니아 수도에 지을 암 전문 병원 건립 계획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 주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도착 시 마중을 나온 아르메니아의 바르탄 오스카니안 외교부 장관의 영접을 받았다. 그는 기욤리시 방문을 포함한 아르메니아에서의 일정 동안 벨라드 장로 및 그 외의 일행과 동행했다. 기욤리시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맞이했으며, 자신들의 학교 건설에 도움을 준 헨츠먼 장로의 기부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또

한 헨츠먼 가족의 기부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들을 방문했다. 헨츠먼 장로와 그의 아들 피터 헨츠먼, 그리고 동료 데이비드 혼은 1988년 아르메니아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을 시작했다. 그들의 노력은 1994년 교회가 공식 인가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르메니아의 교회 회원 2,000명 중 약 800명이 벨라드 장로 및 텅기 장로와 가진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다.

당시 유럽 동부 지역 회장이었던 노인 슈안더 장로는 “동유럽의 교회는 탄탄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청소년 및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활동으로 가득한 놀라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동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된 후 15년 동안 교회 회원 수는

26개 지방부와 1개 스테이크를 구성할 만큼 늘어났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르메니아는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아르메니아 정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시초를 초기 기독교 시대에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다대오와 바돌로매로 보고 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사제들은 벨라드 장로, 텅기 장로, 노인슈안더 장로, 헨츠먼 장로와 그의 아들들을 그들의 성소로 초대하였고, 크트릿 데비지안 신부는 성소의 정원들과 건물들을 안내하면서 건물 기초 중에는 주후 304년에 건립되었다고 여겨지는 것도 있다고 언급했다. ■

2006년 9월 16일자 Church News에서 발췌

새로 부름 받은 신임 성전 회장 및 메이트론

38 개 성전의 새로운 성전 회장들과 부인들 대부분이 2006년 11월 1일, 공식적으로 부름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새로 부름 받은 신임 회장 및 메이트론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서울

전종철, 차영심

가나 아크라

존 시 라이딩, 나오미 엠 라이딩

과테말라 과테말라 시티

벤저민 아이 마르티네스, 메레디스 에이 마르티네스

네바다 라스베가스

에이치 브루스 스투키, 셰릴 시 스투키

뉴 멕시코 앨버커키

이반 지 워넵스, 아넷 와이 워넵스

뉴욕 팔마이라

랄프 이 시바크, 뮤리엘 와이 시바크

대만 타이페이

제럴드 에이치 워커, 크리스티 시 워커

멕시코추세츠 보스턴

케네스 지 허친스, 프리실라 지 허친스

멕시코 베라크루즈

제이 래리 메모트, 셸리 더블류 메모트

멕시코 비야에르모사

빈센테 아이 메테로스, 로사리오 디아즈 메테로스

멕시코 에르모시요 소노라

빅토르 엠 세르다, 올란다 세르다

멕시코 와하카

림하이 온테베로스, 베오네 에스 온테베로스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웬델 이 브라운, 글리 비 브라운

브라질 레시페

발데미로 스크라바, 마리아 제이 멘테스 스크라바

브라질 상파울루

자이로 마자가르디, 엘리자베스 아이 마자가르디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

페드로 브라사니니, 베티 시 브라사니니

서스캐처원 레지나

테일 이 에반슨, 필리스 티 에반슨

스웨덴 스톡홀름

벵크트 회글룬트, 잉에르 회글룬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엔 얼 데상, 주디스 엠 데상

알버타 카드스톤

도널드 에스 헨슨, 주디스 헨슨

애리조나 메사

에즈라 티 클락, 버지니아 엠 클락

영국 프레스턴

아놀드 존즈, 준 에프 존즈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엔 게일런 홉킨스, 마카렛 시 홉킨스

유타 맨타이

제이 브루스 할리스, 말레인 에스 할리스

유타 몬티셀로

도널드 브이 잭, 셸리 지 잭

유타 바운티폴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 린앤 티 리차즈

일본 동경

마사유키 나카노, 미치코 에이 나카노

일본 후쿠오카

류쇼우 나카무라, 노리코 유 나카무라

캘리포니아 레드랜즈

웨인 에이치 브링허스트, 리타 시 브링허스트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리차드 에이치 왕겔, 캐런 에이치 왕겔

코스타리카 산호세

이 제럴드 호스, 조운 지 호스

콜로라도 덴버

데니스 케이 브라운, 캐슬린 에이 브라운

퀘벡 몬트리올

테리 엘 롤린스, 엘레너 엠 롤린스

타히티 파페테

토마스 알 스톤, 다이앤 에스 스톤

텍사스 휴스턴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매리앤 비 브래드포드

필리핀 마닐라

얼 엠 몬슨, 도나 엠 몬슨

호주 브리즈번

터렌스 엘 데이비스, 놀라 와이 데이비스 ■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에서 “윌리와 마틴 회고전, 물론 손수레 개척자들을 기리며”에 전시되었던 작품들이 온라인 전시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

박물관, 전시회 통해 손수레 여정 기념

윌 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를 기리고 손수레로 미국 대평원을 건너 온 첫 번째 이주 15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 “윌리와 마틴 회고전, 물론 손수레 개척자들을 기리며”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에서 성공적으로 열렸으며 최근 폐막했다.

1856년 유타로 가는 도중 와이오밍의 초원에서 눈보라에 휘말린 윌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를 묘사한 회화와 조각들이 주를 이룬 이번 전시회는 현재 아래의 박물관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www.lds.org/churchhistory/museum)

박물관의 로버트 데이비스 관장은 “전시회의 거의 모든 라벨에 개척자나 구조자들이 한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용문들과 예술 작품들은 끔찍한 비극을 이겨내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을 간직한 이 충실한 사람들을 향해 동정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시회는 영국에서 배에 오르는 장면부터 아이오와 및 네브라스카의 눈 내리는 평원을 건너는 장면까지 유타로 향해 갔던 개척자들의 힘든 여정을 따라갔다. 전시회의 마지막 부분은 용감한 구조자들이 지친 손수레 부대 개척자들을 안전하게 솔트레이크시티로 데려갔을 때 새롭게 솟아난 희망을 묘사했다.



스티븐 마크 바틀로뮤 작, 윈드 버츠에서 눈속에 갇힘

스티븐 마크 바틀로뮤의 작품은 그의 고조모가 눈 속에서 나무를 모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글렌 호킨스의 작품은 그의 조상 앤 주얼 로울리가 일곱 자녀의 도움을 받아 손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2006년은 첫 번째 손수레 부대가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지 150주년 되는 기념비적인 해였으며, 새 전시회는 이를 기념한 것이었다. 그들이 처했던 고난에 대해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200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에 대해 그들이 치른 대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산을 옮기는 신앙”,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84쪽)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작가들 중에는 윌리와 마틴 부대 개척자와 그들을 구조한 사람들의 직계 자손도 있다.

스티븐 마크 바틀로뮤의 그림은 그의 고조모와 고조모의 언니가 십대였던 시절, 눈 속에서 나무를 주워 모으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는 조사를 통해 이 소녀들이 데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구출되기 전까지 초원을 건너는 내내 가족이 소유

한 두 개의 손수레 중 하나를 끌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가 글렌 호킨스는 윌리 부대에서 일곱 자녀와 함께 여행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아 눈 속에서 손수레를 끌고 갔던 미망인인 그의 조상, 앤 주얼 로울리를 그렸다. ■

회원들, 올리버 카우드리의 200번째 생일 기념

알 스콧 로이드, Church News 기자

몰몬경의 세 증인 중 한 명인 올리버 카우드리가 버몬트 주의 뉴잉글랜드 마을, 웰즈에서 태어난 것은 200년 전인 1806년 10월 3일이었다. 지역 교회 회원들과 주민들은 9월 23일, 한 감리교 교회에 모여 브리검 영 대학교 교회 역사학 교수와 버몬트 주 몬트펠리어 스테이크 회장의 강연을 들으며 그날을 기념했다.

기념 행사는 마을의 공원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비가 온 관계로 교회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다. 참석자 가운데는 그

감리교회의 데이비드 아담스 목사와 론 브레머 시장이 있었다.

“올리버는 버몬트에서 세 가지 기본적인 것, 즉 읽기, 쓰기, 산수를 배웠습니다. 그가 버몬트를 떠났을 때 그는 그와 다른 세 가지, 즉 회복, 계시, 화합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교회 역사 및 교리 교수인 프레드 이 우즈는 말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와 함께 발표한, 천사가 나타나 몰몬경 원판을 보여 준 거룩한 시현에



올리버 카우드리

대해 증언하는 공동 성명은 몰몬경의 서문에 나온다. 올리버는 회복된 교회의 “두 번째 장로”(교리와 성약 20:3 참조)였으며, 여섯 명의 교회 설립자 중 한 명이었다고 우즈 형제는 말했다.

“올리버는 몰몬경을 [번역할 때] 조셉 스미스의 서기로 일했습니다. 몰몬경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몰몬 역사 및 신학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역사와 종교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사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이어 말했다.

우즈 형제는 올리버가 1828년부터 1829년까지 뉴욕 주 맨체스터 읍에서 학교 교사로서 스미스 가족과 하숙한 것, 그 후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할 때 함께 있었던 것, 그리고 몰몬경의 번역과 출판에 있어 하

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포함하여 그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되짚었다.

우즈 형제는 교리와 성약 6편을 인용하며, 올리버는 “재물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7절)라는 권고를 받았고, 그리하여 그가 “많은 선을 행하는 방편이 [될]” 것이며, 그의 간구하는 마음이 계시를 받게 했다고 언급했다.(14~17절, 21~24절)

“올리버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그러하듯, 보편적인 죄인 교만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1838년 4월, 교회의 조직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파문을 당했습니다.”라고 우즈 형제는 말했다.

우즈 형제는 칠십인이었던 지 호머 더햄 장로(1911년~1985년)가 기록한 다음 말을 인용했다. “토지의 매각에서부터 일어난 오해와 얽혀, 거짓된 것이었을 수도 있던 증언 때문에 그는 결국 교회 평의회에 출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즈 형제는 “고소를 한 사람들 모두 회원 자격을 잃었으며, 이후 교회의 적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10년간 올리버는 주로 오하이오 주 티핀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그 기간 동안 법정에서 그의 반대편 변호사와 몰몬경에 대한 간증에 관한 문제로 맞서야 했던 경우를 포함하여 단 한 번도 몰몬경에 대해 그가 쓴 간증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우즈 형제는 말했다.

우즈 형제는 “6년이라는 기간 동안(1842년~1848년), 브리검 영의 형이자 올리버 카우드리의 처남인 피니어스 영(피니어스 영은 올리버의 이복 여동생 루시와 결혼했다)은 지속적으로 올리버에게 편지를 쓰고 그를 방문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올리

버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일지를 간직하고 있던 윌라드 리처드는 1843년 봄에 조셉 스미스에게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충분히 겸손해졌는지, 돌아올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올리버에게 다른 여러 가지 말과 함께, ‘당신의 형제들은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 형제님도 알고 계시듯이, 형제님의 거처는 시온이어야 합니다’라는 말이 담긴, 양떼로 돌아오라는 권유가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올리버는 정중하게 답했지만, 그는 그의 파문과 관련된 정황이 사실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교회 회원 자격을 되찾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우즈 형제는 말했다.

1848년 10월, 피니어스 영은 카우드리 가족을 위스콘신 주 엘크혼으로 초대했다고 우즈 형제는 말했다. 그는 아이오와 주 케인스빌에서 열리는 교회의 지역 대회에 참석하도록 올리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여섯 자녀 중 유일하게 살아 남은 아이를 그곳에 데려갔다. 그 모임에서 올리버는 2,000명에 가까운 회중에게 말했으며, 교회 회원 자격을 요청했다. 다음 몇 주 내에 그는 교회의 온전한 회원 자격을 다시 갖게 되었으며 1848년 11월 12일에 다시 침례 받았다.

솔트레이크 계곡 지역의 교회에 참여하고, 유실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올리버는 먼저 아내의 친정인 휘트머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아내를 미주리 주 리치몬드 데리고 갔다. 올리버는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서부로 여행할 수 없었으며, 결국 1850년 3월 3일에 숨을 거두었다. 우즈 형제는 올리

버의 처남인 데이비드 휘트머가 다음과 같이 한 말을 인용하였다. “올리버는 제가 보아 온 사람 중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죽었습니다. 가족들과 악수를 하고 아내와 딸에게 입맞춤을 한 후 그는 ‘이제 난 마지막으로 늙게 되었어. 난 내 구주께 가는 거야.’라고 말한 직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죽었습니다.” ■

2006년 9월 30일자 Church News에서 발췌:
올리버 카우드리 의 인생에 관한 역사적 자료는 올리버 카우드리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 9월 23일 버몬트 주 웰스에서 프레드 이우즈가 한 말씀,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에서 발췌.

• 한 가지 표준을 선정하여 그에 대해 공부하고, 그에 따라 생활할 목표를 세운다.

올해 대회의 주제는 교리와 성약 121편 45절에서 발췌한 2007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로써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이다.

위성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방송에 대한 정보는 지역 지도자들에게 연락하거나 www.lds.org/broadcast에 접속하여 받을 수 있다. ■

본부 청년 회장단, 청년들에게 모임 준비 권유

본부 청년 회장단은 교회의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돌아오는 2007년 3월 24일에 열릴 연례 청년 총회를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라고 권유했다.

본부 청년 지도자들은 모임 계획을 발표하며, “청년 총회는 제일회장단이 교회의 청년들인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여러분이 제일회장단과 본부 청년 회장단들의 격려를 받고 그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말했다.

12세부터 18세 연령의 수십만 청년들이 매년 위성 방송에 참여하기 위해 전세계 곳곳의 집회소에 모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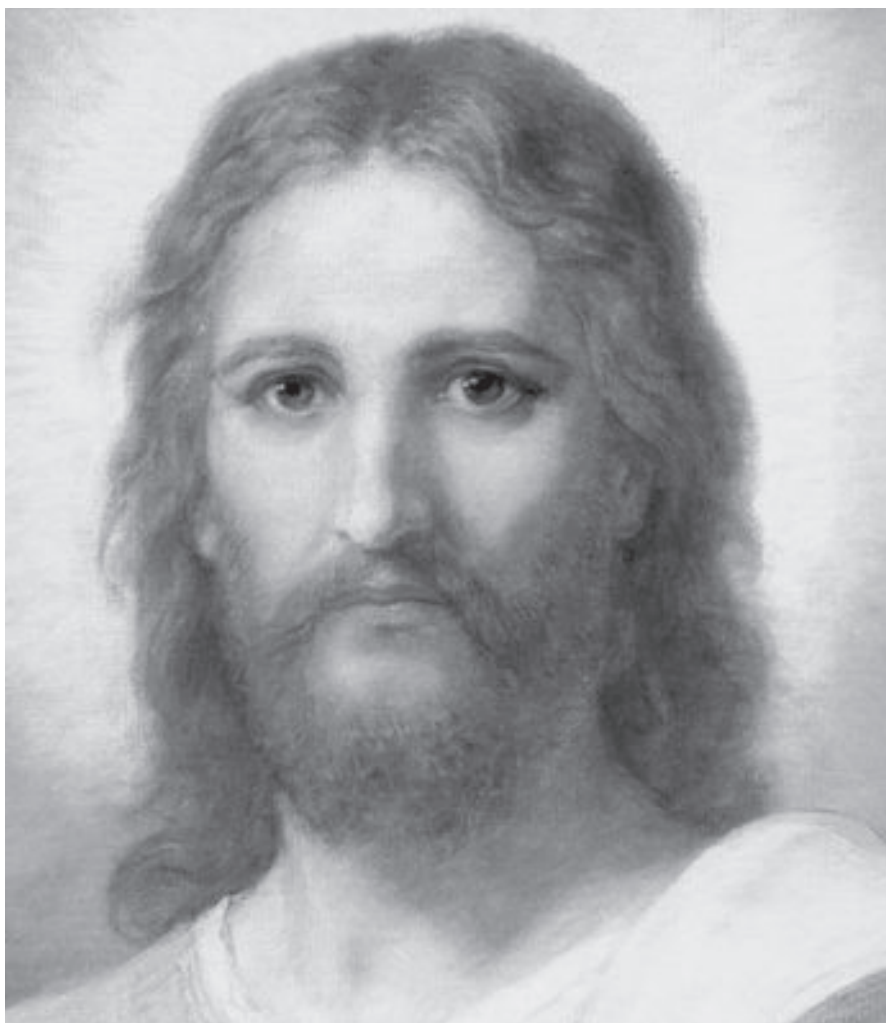
올해 본부 청년 회장단은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여 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라고 권유했다.

- 교리와 성약 121:45를 외운다.
- “후기의 시온 청년으로서”를 외운다.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4쪽)
- 신앙개조 제13조를 공부한다.

또한 본부 청년 회장단은 청년들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읽고 다음 중 한 가지를 하도록 권고했다.

- 성신과 관련된 각 참조 성구에 동그라미를 친다.

- 책자에서 찾을 수 있는 약속들을 표시한다.



2007년 청년 총회는 구주에 초점을 둘 것이다.

하인리히 호프만 그림, C. HARRISON CONROY CO. INC. 제공

2007년 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7년 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친4쪽과 친5쪽에 있는 “나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를 참조한다.

1.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전시물을 준비한다. 동물, 꽃, 식물, 음식 등의 사진을 보여 줄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피아노 반주자가 경건한 노래를 연주하는 동안 꽃 한 송이를 돌려가며 어린이들에게 꽃을 주의 깊게 보라고 한다. 어린이들에게 “누가 이 꽃을 만들었을까요?”라고 묻는다. (예수 그리스도-꽃은 창조의 일부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 꽃을 만드셨을까요?”라고 묻는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에게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권유한다.

각 어린이에게 종이와 크레용을 나누어 준다. 피아노 반주자가 조용히 연주하는 동안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를 그려 보라고 한다. 어린이들이 그리기를 마치면 초등학교 교실에 그림들을 전시한다.

2. 어린이들에게 기적이 무엇인지 물어 본다. (기적은 항상 논리적으로는 설명 되지 않는, 놀랍거나 희한한 일이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준다.) 어린이들에게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의 예를 말해 보라고 한다. 밤에 지지 않는 해, 매일 아침 땅 위에 나타난 만나 등이 그 예이다. 니파이후서 27:23을 찾아본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점과 우리의 신앙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점을 알려 준다.

어린이들을 네 그룹으로 나눈다. 초등학교 모임 며칠 전에 네 명의 초등학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기적 중 한 가지에 대해 토론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누가복음 17:12~19 참조), 맹인을 고치신 일(마가복음 8:22~26) 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네 개의 정거장(교사-가장 중요한 부름 [1999년] 179쪽 “정거장” 참조)을 만들고, 어린이들에게 각 정거장을 돌라고 한다. 각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능을 보이며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고 설명하도록 부탁한다. 각 지도자에게 구주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한다.

3. 노래 발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리아호나, 1997년 12월호, 친4쪽). 각 절에 담긴 이야기에 집중하며 몇 주에 걸쳐 이 노래를 가르칠 수도 있다. 어린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악보 오른쪽 밑에 있는 경전 구절 중 처음 세 구절, 즉 마태복음 3:16~17, 제3니파이 11:6~8, 조셉 스미스-역사 1:17을 배정한다. 어린이들에게 각 구절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들

어 보라고 한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소개하시며 그에 대해 간증하신다. 노래의 마지막 줄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부분을 노래한다.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을 따라 그 줄을 몇 차례 부르도록 한다. 첫 번째로 읽었던 경전 구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다.(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다.) 1절을 부르는 동안 복음 그림 패킷 208번(예수님을 침례 주는 침례 요한)을 보여 준다. 여러분이 마지막 줄을 부를 때 어린이들이 함께 부르도록 한다. 어린이들도 가사 전체를 다 부르게 하여 노래를 반복한다. 두 번째 경전 구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 본다.(예수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이 2절을 부르는 동안 복음 그림 패킷 315(예수님이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시다)를 보여 준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지막 줄을 부를 때 어린이들도 함께 부르도록 한다. 마지막 경전 구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 본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이 3절을 부르는 동안 복음 그림 패킷 403(첫번째 시현)을 보여 준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지막 줄을 부를 때 어린이들도 함께 부르게 한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목소리만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분께서 바로 그곳에 계셨다. 모든 어린이들이 교리와 성약 18:34~36을 펴도록 한다. 어린이들에게 귀 기울여 듣고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마지막 절을 부른다. ■

감사드립니다

이용환 장로
지역 칠십인



지난 한 해 전국 각지를 다니며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미천한 몸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으로 부름을 받아 전국 각지의 성도들을 만나 뵈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참으로 영광스럽고 축복받은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전해진 지 어언 5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이 땅에는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 건물은 날로 아름다워지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생활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단정히 차려입고 성찬을 돌리는 청소년 형제들,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청소년들과 그들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 어머니 또한 교사들, 네다섯 아이들을 달고 다니며 돌보느라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어머니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젊은 형제자매들, 자녀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부모님과 이에 서슴없이 따르는 자녀들, 자매와 아이들만 교회에 나오면서도 세 자녀 네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는 참으로 충실하고 용감한 어머니들, 형제가 교회에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염원을 몇십 년 만에 이룬 자매님의 행복해하는 모습, 그 동안 썩힌 속을 속죄라도 하듯 너털웃음 짓는 착한 남편의 모습, 참된 복음의 기쁨을 깨닫고 눈물짓는 새로운 회원님들, 늦은 나이에 복음의 참됨을 깨닫고 완전히 변하신 연로한 회원님들, 교회에 새로 들어온 회원들을 위하여 복음 원리반 시간에 사랑을 준비하거나 따뜻한 차를 준비하여 참된 복음의 단맛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음 원리반 교사와 도우미들, 온갖 세상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계신 신권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회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수고하고 계시는 감독/지부 회장님들과 스테이크/지방부 회장님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만나 성전 인봉 의식을 받고 행복해하는 신혼 부부들, 밤새 버스를 타고 와서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참으로 충실한 회원들과 이들을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는 성전 봉사자와 성전 선교사님들, 모든 봉사에서 벗어나 젊은이들을 묵묵히 돕고 있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까? 이 아름다운 분들로 인하여 제 가슴은 감사한 마음으로 벅차옵니다. 때로는 감사함으로 눈물도 납니다. 참되고 아름다운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

도 더 전해주려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돕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친 자녀 이상으로 보살피는 선교부 회장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 주고 세상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화평을 주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며, 하나님의 참된 존재를 알게 해 주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

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분들이 주신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다음 세상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만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해 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이 아름다운 복음을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나누면 우리의 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교회에 가지 않을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단순한 한마디 말이 사람의 일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님께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신 대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딤후 6:17~18)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땅에 주님의 성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좀 더 자주 간다면 더 큰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전에 다니다 보면 내 스스로가 변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대리 의식은 돌아가신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원리는 참으로 요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한 해는 회원 한 분 한 분이 더욱 발전하고 축복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사랑하
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
드립니다. 아멘. ■



“체험! 청소년 모임의 열기 속으로”

‘부산’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가? 바다? 칼칼한 사투리? 수산 시장? 물론 그것들도 유명하지만 부산 앞바다의 출렁이는 파도처럼 생기 넘치는 청소년들이야말로 부산의, 부산 스테이크의 자랑거리다. 부산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였던 싱싱하고 활기 넘치는 현장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준비!”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 합동 모임을 찾은 날은 가랑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리는 비와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부산 스테이크 온천와드 마당에는 “준비”를 외치는 청소년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가득했다. ‘준비’라는 구호는 스카우트의 전통적인 인사법. 이날의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 합동 모임은 스카우트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스카우트 단복을 깔끔하게 입고 베레모까지 맞춰 쓴 청소년들의 모습은 단정하면서도 힘 있어 보였다.

부산에서는 스테이크의 모든 청소년들이 스카우트 활동을 하던 때가 있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안내를 담당하던 것도 스카우트 대원들의 몫이었고 상호 향상 모임도 모두 스카우트 활동으로 진행되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카우트 활동은 점점 쇠퇴했고, 서서히 그 맥이 끊겨갔다. 적어도 지난 해 초까지는 그랬다. 정확히 2006년 7월부터 부산 스테이크에서는 청소년 합동 상호 향상 모임의 일환으로 스카우트 활동을 부활시켰다.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달성 의무상 프로그램을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스카우트 모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온천와드 감독이자 스카우트의 훈육 위원장이기도 한 정원몽 감독의 말이다. 부산 스테이크의 지도자들과 청소년 역원들은 상호 향상 모임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하나님의 의무상 달성 프로그램을 독려할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스카우트 활동을 떠올리게 되었고, 교회의 가치관과 스카우트 활동의 긍정적인 면을 부합한 새로운 스카우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새롭고 즐거운 활동

청소년들의 열의 때문이었을까? 아침부터 내리던 가랑비는 개회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때쯤 거짓말처럼 그쳐 버렸

다. 청소년들은 맑은 하늘만큼이나 밝은 표정으로 대나무 조각 하나씩을 받아 톱을 사용해 직접 자르기 시작했다. 이날의 활동은 ‘대나무통 밥’과 ‘꼬치구이’ 만들기. 청소년들이 좋아 할만하고 하나님의 의무상 달성 프로그램에도 해당되는 스카우트 활동을 찾던 끝에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날의 활동이었다. 청소년들은 생전 처음 해 보는 톱질에도 힘든 줄 모르고 마냥

재미있어했다. 상대방의 대나무를 잡아 톱질을 도와주고 대나무 안에 넣는 쌀과 물의 양을 서로 의논하는 청소년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활동에 대한 흥분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서로 돕던 청소년들처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익어가는 대나무통 밥 반대편에선 진한 연기와 함께 꼬치구이가 익어가고 있었다. 꼬챙이에 닭과 돼지고기를 꿰고 숯불을 지피는 일도 청소년들의 몫.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청소년 역원들의 세심한 도움 아래 ‘이 순간이 아니면’ 절대 해 볼 수 없는 경험을, 청소년들은 그렇게 열심히 누리고 있었다.

스카우트 활동을 다시 시작한 지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이뤄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도 그렇고, 꾸준히 스카우트 활동을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목표다. 그런 가운데 부산 스테이크의 지도자와 청소년 역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목표는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선교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후기 성도로 살아가는 데 “힘과 자신감을 얻도록 해 주는 것”이다. 그런 목표를 위해서 부산 스테이크의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있고, 기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나무 향이 배인 대나무통 밥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김치를 적하니 엇고 한 손에는 꼬치구이를 든 청소년들의 표정은 무척 행복해 보였다. 모임 시작 전, 삼삼오오 모여 시험과 숙제에

대한 걱정, 그리고 모임 후 학원에 갈 걱정을 하던 청소년들의 어두운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 또, “준비!”

이날 활동에 참석한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의 최우용 형제. 최 형제는 현재 고3으로 지난 해 3월 침례를 받았다. 침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최 형제는 이미 회원이었던 이모를 본받기 위해 기꺼이 침례의 물가로 나아갔다. 침례 받게 된 계기가 이모라면 최 형제를 여태껏 교회에 머무르게 한 힘은 바로 ‘친구’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최 형제에게 더욱 소중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합동 모임은 최 형제에게 무척 특별하다.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서 쉽게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신앙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최 형제의 말처럼 모여서 웃고 즐기는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보였다.

스카우트 활동의 의의에 관한 질문에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일암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같이 모인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산 스테이크에서는 스카우트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고, 또한 청소년들이 더 좋아할 만한 활동을 찾기 위해 계속 ‘준비’ 중입니다.”

밥과 꼬치구이를 말끔히 비우고 뒷정리까지 마친 다음에야 스

카우트 활동은 끝났다. 몇몇 청남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 완수 책자를 펼쳐서 작성하고 역원들을 찾아 확인 받기에 바빴다. 또 몇몇은 농구공을 들고 농구대로 달려갔다. 지도자들과 청소년 역원들은 벌써 다음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의논하고 있었다. 청소년과 역원들이 함께 어울리고, 교회가 청소년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한 모습은 분명,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다.

부산 스테이크의 스카우트 활동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와 도달해야 할 목표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전히 ‘준비’ 중인 지도자들과 환하게 웃으며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품게 되었다.

부산 스테이크 전체에 “준비”라고 외치는 청소년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문자 그대로 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모두가 선교 사업을 ‘준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모 집 합 니 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2007년부터 새로운 연재물을 계획 중입니다. 후기 성도 가정의 따뜻하고 진솔한 모습을 다룰 ‘가정은 지상의 천국’과 자라나는 보배인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기사를 위해 후기 성도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집합니다.

하나, 가정은 지상의 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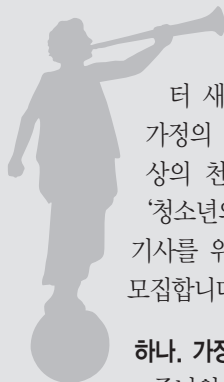
주님의 복음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취재 대상입니다. 꾸준한 가정의 밤을 하는 이야기, 가족이 모두 개종한 이야기,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이야기 그리고 그 외에도 특별한 사연이 담긴 여러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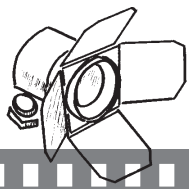
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올해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주제가 바로 ‘청소년’입니다. 후기 성도 청소년으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취재 대상입니다. 상호 향상회에 대한 이야기, 세미나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의무상 달성 프로그램이나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에 대한 이야기 등을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leemh@ldschurch.org (이민희)
문의 전화: 02-2232-1441 (내선 번호 562)





제1회 서울 패전트



2006년 12월 25일, '제1회 서울 패전트'의 막이 올랐다. 공연 준비를 위해 쏟아 부었던 시간과 열정이 성탄의 밤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공연 시작 전부터 서울 스테이크 청운 와드에는 입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관객이 자리했다. 몇몇 사람들은 공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가운데 저녁 7시가 되자 청운 와드 활동실과 예배실을 가로 지른 무대 위에 한 점의 조명이 떨어졌다. 연극 '한 사람을 위한 여행'의 시작이었다.

'패전트'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공연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하지만 한국에서 '제1회 서울 패전트'라는 이름을 걸고 공연이 열리기까지는 좀 더 많은 사연이 있었다. 2004년 7월, 배동철 서울 스테이크 회장은 미국의 '쿠모라 패전트'를 관람하러 갔고, 거기서 연출을 맡고 있던 김영순 자매를 만나 한국에서의 공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서울 패전트의 첫 태동이었다. 2년 후인 2006년 11월, 김영순 자매가 휴가차 한국을 방문했고 배동철 회장과 조만구 서울 선교부 회장을 다시 만나면서 패전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리고 12월 25일 공연까지 이르렀다. 전투 장면에 등장한 조역들까지 합해서 100여명이 넘는 대인원이 등장하는 연극이 불과 한 달 만에 완성된 것이다.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엘마와 엠울레크의 선교 사업을 다룬 '한 사람을 위한 여행'은 연극이 무대에 올려지기까지의 과정만큼이나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었다. 미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 잘 만들어진 의상들은 극에 사실감을 더했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연출은 연극에 대한 몰입을 높였다. 배우들의 연기도 칭찬할 만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단지 '형제님'이나 '자매님'에 불과했던 배우들은 피나는 연습을 통해 각자 '엘마'와 '엠울레크' 그리고 '판사' '제사장' '길비아' 등 극 중 배역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바뀌어 있었다. 관객들의 호응도 대단했다. 관객들은 연극이 공연되던 2시간 동안 마치 몰몬경 시대로 시간 여행이라도 한 것만 같았다고 입을 모았다. 엘마와 엠울레크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끝으로 청운 와드 활동실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패전트의 막이 내린 것이다.

제대로 된 시설에서 패전트를 선보이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시설과 조명 팀'의 이현수 형제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 성도들

의 문화 전통이 시작되었으면 합니다."라고 공연 후의 소감을 밝혔다. 주인공인 '엘마' 역을 맡아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윤정찬 형제는 짧은 시간 안에 패전트를 준비한 것을, 조셉 스미스가 짧은 시간에 번역을 했던 일에 비유하며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고 말했다. 공연이 끝난 후,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이었던 연출가 김영순 자매는 성공적인 공연의 공을 모두 출연진과 스텝들, 그리고 조만구 회장과 배동철 회장에게 돌렸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번 공연은 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순 자매의 말처럼 '제1회 서울 패전트'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여러 출연진과 스텝들,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만구 회장은 이번 패전트의 가장 큰 수확이 바로 "준비했던 사람들이 얻은 자신감"이라고 말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렇다. 서울 패전트가 가져다준 것은 한국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의 큰 공연을 해냈다는 자신감과 다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는 바로 그 점일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제2회 서울 패전트를 생각하고 있다. "이번 공연을 기회로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멋진 패전트가 공연되어 '예수가 온 땅의 구주'라는 몰몬경 이야기를 살아 있는 감동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관람하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배동철 회장의 말처럼 서울 패전트가 한국의 후기 성도를 대표

하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



전주 스테이크 건물 헌납식

지난 12월 17일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스테이크 건물 헌납식이 있었다. 전주 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염원 속에 2005년 5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1년 6개월이 흐른 2006년 11월에 끝났고, 이번 헌납식을 통해 새 건물의 아름답고 영적인 모습이 일반에 공개됐다.

뜻 깊은 헌납식을 맞아 전주에서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무려 일주일 동안 '신축 건물 일반 공개' 및 '선교 전시회,' 그리고 '노년의 모임' 등 여러 행사들이 열렸다.

전주 스테이크 건물은 건축 전부터 많은 지도자와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기에 축제와도 같았던 일주일 간의 모임 동안 교회 내의 여러 지도자와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12일 저녁에는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남 형제가 초청 연사로 나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고, 14일 저녁에는 "행복한 영어"라는 주제로 국제 변호사이자 방송인인 하일 형제의 강연회가 있었다. 두 강연회 모두 수많은 회원과 구도자로 성황을 이뤘고,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는 비법은 물론이고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11일부터 14일까지는 전임 선교사들을 주축으로 대대적인 선교 전시회가 열렸다. 선교사들과 청년 독신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음료수를 나누어 주며 복음을 소개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열정 덕분에 스테이크 건물 헌납식 관련 행사 동안에 많은 구도자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

15일 밤에는 리셉션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회원들이 준비한 음악 공연 및 영상 자료 시청을 하는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해 전주 지역의 저명한 인사들을 초대하여 지난 30년 동안의 전주 지역 교회 발전 과정과 현황을 소개하고, 전주 지역에서의 교회 발전을 위해 협조를 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16일에는 '문화의 밤'이 있었다. 화려하고 우아했던 부채춤과 신명 났던 농악, 그리고 광주 외국인학교 '챔버 오케스트라'의 크리스마스 캐럴 합주 등이 전주의 밤을 빛냈다. 그 밖에도 난타 공연, 스포츠



댄스 시범, 청소년들의 클래식 기타 연주, 몰몬경 속의 내용을 소재로 한 연극, 전주 와드 원광대 국악과 교수로 있는 남상숙 자매와 외부 전문 연주자들의 한국 음악 합주 등의 연이은 공연은 참석한 이들에게 많은 감흥을 주었다. 공연 마지막을 장식한 초등학교 연합 합창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고원용 회장과 지역 칠십인 이용환

장로를 비롯해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 감동을 더했다.

공연에 참가한 인원만도 200명이 넘었던 '문화의 밤'에는 400명이 넘는 많은 관람객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건물의 아름다움과 수용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일 대망의 헌납식 아침, 새로운 건물에서는 고원용 장로 회장 부부와 넬로우 대전 선교부 회장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 와드와 중앙 와드의 합동 성찬식이 있었다. 성찬식을 마친 후에는 스테이크 합동 침례식을 가졌다. 헌납 행사에 맞춰 기다려왔던 많은 개종자들이 함께 침례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회원들의 축하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열린 마지막 행사인 4시 헌납식에서는 고원용 회장의 특별 요청으로 전주 지역 최초의 교회 회원이자 개척자였던 박주인 형제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 신앙 생활 동안 쌓아온 간증과 전주 지역에 대한 사랑을 전했던 박 형제의 말씀은 회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박주인 형제의 간증 후 고원용 회장은 축하와 권고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헌납기도를 끝으로 길고도 행복했던 일주일간의 모든 헌납 행사가 막을 내렸다. 전주의 모든 지역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일주일이었다. ■



“교회에서 배운 대로”

차를 주차할 때 언제나 마주치게 되는 장애인 주차 구역, 건물의 출입구에서 가장 가깝게 그려져 있는 그곳을 항상 무심히 지나쳤다. 고궁이나 공원 입구에서 대여해 주고 있는 유모차를 보면서 ‘참 편리하겠단’ 생각만 하고는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이제 꼭 누군가를 떠올리게 될 것 같다.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의 진경섭 형제. 두 가지 모두를 제안한 공무원이자 감독단으로 봉사하고 있는 신권 지도자다. 진 형제를 만나고 왔다.

진경섭 형제는 지난 11월 29일 ‘30회 청백봉사상’을 수상했다. 그 옛날 청백리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제정된 청백봉사상은 공직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그렇기 때문에 청백봉사상 수상은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영예다. 하지만 떠들썩한 세간의 평가와 달리 수상자인 진 형제는 겸손하고 담담했다.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그대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일했기 때문에 받은 상이라는 말이다.

진 형제는 중학교 3학년 때 형을 따라 개종했다. 청소년과 청년 시절을 교회에서 보내면서 그는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선교 사업 후, 1989년부터 그의 ‘남다른’ 공무원 생활이 시작됐다. 공무원들의 위세가 아직 대단하던 그 시절, 진경섭 형제는 민원인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었다. 그 결과가 바로 장애인 주차 구역과 고궁에서의 유모차 대여 등의 여러 정책 제안.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만 변경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 관련 규정을 전국 어디서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최근의 제안까지 그는 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신앙생활에 대한 간증과 지도자로부터 배운 것들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감독이 접견을 통해 회원을 도와주는 것처럼 주민이 원하기 전에 먼저 파악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진 형제는 봉사하는 자세가 몸에 밴 듯 했다. 신촌 와드에서의 인터뷰 도중 한 형제가 들어와서 뭔가를 찾자 그는 바로 몸을



30회 청백봉사상 수상 중인 진경섭 형제

일으켜 도움을 줬다. 지역 주민과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꾸준히 생각해 내는 것도 그의 봉사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는 수년 간 개인적으로 불우 이웃을 돕고 있다. 청백봉사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도 투병 중인 동료들을 위해 모두 쾌척했다. 그의 봉사 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역시나 “교회에서 배운 것.” 진경섭 형제는 도무지 다른 대답을 할 줄 모른다. 무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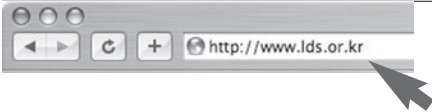
이든 교회에서 배운 것이고 또 그것을 실천할 뿐이다. 그것이 바로 진경섭 형제의 삶이다.

그의 말을 빌자면 그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마포구청에서 주는 ‘제안왕’ 상에다가 남들은 한 번 받기도 힘들다는 세 번의 장관 표창, 그리고 이번의 청백봉사상까지 언뜻 짝아 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진 형제가 말하는 축복은 다른 곳에 있다. “근무하면서 도움을 드렸던 분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일전에는 어떤 분이 임종 전에 전화를 하셔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진경섭 형제는 이번 수상으로 인해 승진을 했다. 물론 기쁜 일이지만,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주님의 면전에서 승진하는 것이다.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나중에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귀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 형제가 전하는 간증이다.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의 마지막 연은 이렇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진경섭 형제가 주님께 전할 귀환 보고를 상상해 본다.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 모든 삶이 당신께 배운 그대로였다고 말하는 진 형제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는 지금도 여러 가지 정책 제안과 봉사 활동을 계획 중이다. 그 모든 일도 역시나 “교회에서 배운 대로!” ■



‘제4회 전국 청년 지도자 훈련 모임’

1월 5일과 6일 양일 동안 증평군에 있는 ‘증평 유스 호스텔’에서 ‘제4회 전국 청년 지도자 훈련 모임’이 있었다. 중국의 5개 종교 교육원 산하에 있는 청년 독신 지도자 69명이 모인 이번 모임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고원용 장로의 감리로 진행되었다. 민혜기 교육 기구 대표와 지역 칠십인 이용환 장로는 개회사를 통해 각각 “사람에게 집중하는 지도력을 배울 것”과 “교회의 지도력은 경쟁의 지도력이 아니라 화평의 지도력”이란 말을 전하며 모임의 주제이기도 한 지도력에 대해 강조했다.

첫째 날은 ‘지도력의 원리’를 배우는 훈련 시간들로 짜여졌다. 광주 종교 교육원 조용현 교수의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란 힘찬 선언으로 시작된 훈련은 평의회 원리에 대한 세미나 후 그 원리를 직접 적용해 보는 그룹별 토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뒤이은 훈련 시간에는 각자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 활동을 통해 위임의 원리에 대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훈련 뒤에는 지난 11월에 있었던 ‘제1회 전국 청년 독신 문화 축제’에 대한 평가회가 있었고 저녁에는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는 무도회 시간이 있었다.

둘째 날이자 모임의 마지막 날이었던 6일 오전에는 ‘제2회 전국 청년 문화 축제’에 대한 제언 및 토의가 있었고 지도력의 원리를 개인에게 적용해 보는 토론

시간이 뒤를 이었다. 이번 훈련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제2회 전국 청년 문화 축제’는 ‘영상제’라는 이름으로 각 종교 교육원 별로 한 편 이상의 영상물을 준비해서 발표하는 새로운 형식의 모임으로 계획되었고, 담당은 서울 서 종교 교육원으로 결정되었다. 고원용 회장은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전달하며 “여러 만남과 어울림을 통해 청년 지도자들이 발전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부산 종교 교육원 독신 송년 무도회

12월 25일,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 의미 있는 날에 부산 종교 교육원에서 ‘바운티풀 축제 & 송년 무도회’ 모임을 가졌다.

부산 서 지방부

청소년 송년 무도회 - 2006년 12월 30일 부산 서 지방부에서는 청소년 송년 무도회가 있었다.

성인 송년 모임 - 2006년 12월 16일 부산 서 지방부에서는 송평종 부산 선교부 회장의 감리로 ‘성인 송년 모임’이 진행되었다.

서울 남 스테이크

성탄 축하 영상 음악회 -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을 채워 준 아름다운 음악회가 작년 이어 두 번째로 스테이크 센터에서 있었다.

전국 독신 무도회

12월 30일 경희 대학교 네오 르네상스관에서는 ‘전국 독신 송년 무도회’가 있었다.



시흥: 증평 유스 호스텔

서울 북 스테이크

기혼 성인 송년 파티 - 12월 30일 청년 독신들의 주관 하에 ‘2006년 기혼 성인 송년 파티’가 있었다.

스테이크 합창제 - 11월 25일 녹번와드에서 ‘서울 북 스테이크 합창제’가 열렸다.

수원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 - 2007년 1월 5일부터 6일까지 평창 국립 청소년 수련원에서 동계 청소년 대회가 있었다.

전주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 - 2007. 1월 4일과 5일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동계 청소년 대회’ 및 ‘새로운 시작’ 모임이 있었다. ■



사진 촬영: 유성주, 홍제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282기 14명



강한글
순천 지방부
순천 지부
서울 선교부



김중현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부산 선교부



김민준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
서울 서 선교부



김희재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대전 선교부



김선미
부산 서 지방부
영도 지부
대전 선교부



남윤정
수원 스테이크
신평 와드
부산 선교부



김아람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서울 서 선교부



마현석
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서울 선교부



백선일
수원 스테이크
평택 와드
부산 선교부



임은솔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대전 선교부



이다래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대전 선교부



임재홍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
서울 서 선교부



정예임
마산 스테이크
통영 와드
대전 선교부



최제원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서울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인천 스테이크
만수 와드 감독: 한규태(전임: 임정록)

제3회 영어 용변 대회

청소년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돕고,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 주기 위한 '영어 용변 대회'가 올해도 열립니다. 영어에 관심 있고 재능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회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선 일시: 2007년 4월 28일(토) 오후 2시
주제: 봉사 (원고는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함)
제한 시간: 초·중등부 3분, 고등부 5분
장소: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1. 참가 자격

한국 국적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해외 체류 기간의 합이 6개월 이하인 자.

2. 참가 방법

각 스테이크/지방부 별 예선을 실시, 본선 진출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용변 원고와 육성 녹음 테이프를 3월 10일까지 한국공보위원회로 제출



3. 시상 내역

〈초등부〉

최우수상: 1명, 상장과 부상
우수상: 1명, 상장과 부상
장려상: 5명 내외, 상장과 부상

〈중등부〉

최우수상: 1명, 상장과 BYU Hawaii Campus 영어 연수 과정 3주 무료 연수 (항공료 포함)
우수상: 1명, 상장과 BYU Hawaii Campus 영어 연수 과정 3주 무료 연수 (항공료 본인부담)
장려상: 5명 내외, 상장과 부상

〈고등부〉

최우수상: 1명, 상장과 BYU Hawaii Campus 영어 연수 과정 3주 무료 연수 (항공료 포함)
우수상: 1명, 상장과 BYU Hawaii Campus 영어 연수 과정 3주 무료 연수 (항공료 본인 부담)
장려상: 5명 내외, 상장과 부상